참고자료 ②

진화된 '2.0세대'의 새로운 촛불집회?

동시대에 발생한 사건은 그것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객관성이나 과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거리를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시작되어 지금(6월 19일)까지 총 43회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이하 촛불집회)처럼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렇다고 동시대의 중요한 사건이 던져준 근본적 쟁점들에 대해 마냥 대답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 중 '새로운 사회운동 주체로서의 10대들'이라는 쟁점 같은 경우가 그렇다. 왜냐하면 이 쟁점은 향후 한국 사회운동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따져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최근의 쇠고기 촛불집회가 문화연구자에게 던져준(던져줬다고 생각할 만한) 질문 중 '새로운 운동주체로서의 10대'라는 쟁점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고생들은 왜 청계천 소라광장에 나왔는가?

지난 5월 2일 오후 7시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 앞에서 시작되어 지금(6월 19일)까지 총 43회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촛불집회의 초기 동력이 중고생들이었다는 점이다. 가령 5월 3일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의 참가자 중 80%는 중고생들, 특히 여학생들이었다.[1] 게다가 현재까지 서명인 1백30만 명을 넘어선 이명박 대통령 탄핵 온라인 서명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안한 것이 '안단테'라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2]

이런 '기현상'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각종 보수주의자들은 친북 좌파세력에서부터 사탄까지 들먹이며 예의 '배후설'로 대응했는데, 이들은 늘 그랬으니 새삼 놀라운 것도 없다. 진보를 표방하는 지식인들 역시 중고생들이 주도한 촛불집회의 "'폭발적 양상'에 대해 …… '예상 밖이고 놀라운 상황'"이라고 반응했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자들과 마찬가지였으나 그나마 이들은 분석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내놓았다. "10대 고유의 팬덤 현상"이 중고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는 분석[3]에서부터 "386부모의 '뜨거운 피'를 물려받았다"는

1) 특별취재팀, 「여중고생들의 발랄한 경고 "미친소 가라": 청소년도 광우병 걱정, 어른들 뭐하세요?」, 『오마이뉴스』, 2008년 5월 3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2522)

2) 박종진, 「사법처리 위기 '안단테', "난 당당하다"」, 『머니투데이』, 2008년 5월 14일.

격세유전설[4]까지 갖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이른바 '쌍방향 소통 '웹 2.0' 세대"라는 또 다른 판본의 '신세대론'이다.[5]

이 분석의 주창자 중의 하나라고 할 만한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쌍방향 소통 '웹 2.0' 세대"란 "인터넷 공간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자아의식과 사회의식을 스스로 형성해 가는 10대들"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1)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소통을 중시하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며, 2) 모바일과 인터넷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삼은 이른바 '디지털 유목민(노마드)'이고, 3) 기성세대의 '욕망의 정치'에 반해 자아실현을 소중히 하는 '탈(脫)물질주의 가치'의 세대이자, 4) 부모인 '386세대'로부터 사회비판 의식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격세유전'적 특징도 갖고 있다.[6]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주도했기 때문에 촛불집회는 "엄숙에서 발랄로, 의례에서 축제로, 지도에서 참여로, 위계에서 네트워크로, 단절에서 소통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7]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기술적(記述的)이며, 어떤 평자의 지적처럼 "수단은 수단일 뿐"이라는 반론에도 취약한 주장에 불과하다.[8] 지금의 10대가 온라인 문화의 본격적인 수혜자라는 뻔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온라인 문화의 메커니즘을 더 정교하게 설명하는 일 아닐까? '2.0' 세대론'이 말하는 10대들의 다른 특징들은 논외로 하더라도(이것들은 누구나 제 한 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너무나도 헐렁한 바지와 비슷하다), 인터넷 공간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10대들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다는 말은 일종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중고생들은 왜 그동안 침묵했는가?:'정치적인 것'의 출현

과연 인터넷은 "1960년 4월 혁명을 계기로 1900년대의 학생운동[이] 중·고등학생운동에서 대학생운동으로 질적 전환"[9]을 하게 된 이후 50년간 '잊혀진 세대'였던 10대들을 다시 정치화시킨 원동력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들을 정치화시켰다고 말할 경우 그것은 틀린 말이 된다. 차라리 인터넷의 존재 자체에 주목하는 게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느 평자의 묘사대로 '역사의 현장'에서 10대들이 사라진 이유는 그들에게 전대협과 한총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전 50년간 10대들에게는 자신들을 재현/대표해줄 강력한 단체가 존재하질 않았다. 부르주아적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대표를 갖는 집단만이 국가의 장(場)에서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한다고 해도, 국가가 상대하는 개인은 어떤 집단으로 간주된 집단"일 뿐이다.[10]

---

3) 최현준·황춘화, 「'자발적이고 유연하지만 강력한 저항': '새 집회문화' 전문가 시각」, 『한겨레』, 2008년 5월 5일.

4) 송경화, 「'2.0 세대' 386부모 '뜨거운 피' 물려받았다: 자유분방하게 크며 사회비판 의식 배워」, 『한겨레』, 2008년 5월 14일.

5) 황춘화·송경화, 「광장에 '디지털 촛불' 든 그들은 '2.0세대'」, 『한겨레』, 2008년 5월 14일.

6) 김호기, 「쌍방향 소통 '2.0 세대'」, 『한겨레』, 2008년 5월 14일.

7) 김호기, 「발랄 당당 '전국민 좌절 금지' 촛불」, 『한겨레』, 2008년 6월 4일.

8) 정대화, 「'386부모의 영향'은 심각한 오보가 될 수도」, 『한겨레』, 2008년 5월 16일.

9) 정대화, 「'386부모의 영향'은 심각한 오보가 될 수도」, 같은 면.

10) 서용순, 「바디우 또는 철학에 의해 다시 사유되는 정치」, 『진보평론』(제35호/봄), 메이데이, 2008, 60~61쪽. 특정 집단에

우리가 인터넷의 '존재 자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LAN이 연결된 PC 하나만 있으면 끼리끼리 뭉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의 열린 공간이 10대들에게는 전대협과 한총련 같은 역할을 해줬다는 말이다. 주로 10대 후반 등이 대다수라는 싸이월드 가입자의 활동 패턴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더 분명해진다. "2008년 싸이월드 가입자는 2200만 명 …… 이들은 평균 78명의 일촌을 두고, 5개의 클럽에서 활동하며, 79명의 메신저 대화상대를 두고 있다. 10대가 올리는 게시물은 이런 '디지털 인맥'을 타고 '일촌 파도타기'나 퍼가기를 통해 다시 전파되는 것이다."[11]

이런 10대들에게는 저마다의 전대협과 한총련이 있다. 싸이월드의 디지털 인맥은 물론이거니와 촛불집회와 더불어 다시 주목받는 디시인사이드와 다음 아고라까지 인터넷 상의 각종 카페와 토론방 같은 네트워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12] 똑같은 인터넷이지만 이미 오프라인에도 여러 재현/대표체계를 갖고 있는 20~30대보다 10대에게 인터넷 공간이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는 별 관계가 없는 쟁점이다.

이렇게 보자면 10대들은 "주류 흐름에서 배제되고 소외됐을 뿐"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예전에 그들은 자신들을 재현/대표해줄 체계가 없었고, 지금은 갖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의 말을 빌리자면 '감각적인 것의 배분/나눔'(le partage du sensible)의 구도가 바뀐 것이다.[13] 10대들이 이제 제 몫의 배분/나눔을 되찾은 것이다.

랑시에르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는 '치안'(la police)이다. 즉, 한 사회를 위계적으로 조직하고 통치하는 구조 일체가 바로 치안인 것이다. 그렇지만 치안이 단순히 어떤 구조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권력, 예컨대 곤봉을 든 경찰력으로 상징되는 어떤 억압의 구조이기 이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즉, 감각적인 것)을 나누고 할당하고 분배하는 상징적 구성원리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la politique)는 치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게 만든 존재들, 랑시에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몫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보편적 평등이라는 개념("우리도 우리의 몫을 가지기에 합당한 존재이다")에 근거해 각자의 몫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다. 즉, 치안이 만들어놓은 질서(특정한 분할선에 의거해 감각적인 것을 배분하고 나눠놓은 질서)를 거슬러 감각될 수 있는 것을 다시 나누고 할당하고 분배하려는 행위가 정치이다.

이런 점에서 랑시에르의 정치는 곧 민주주의와 동의어이며,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정치체제라기보다는 치안이 자신의 지배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일체의 아르케(근본원리)에 대한 부정이고, 아르케에 대한 이런 부정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평등의 공리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랑시에르에게는 정치=민주주의=평등의 공리인 셈이다. 요컨대 인터넷은 자신의 말이 말로 인정받지 못해왔던 10대, 자신의 활동이 오로지 사적인 것으로만 간주되던 10대(랑시에르가 말하는 '몫-없는 자들')가 바로 이 나눔의 방식을 문제삼고, 자신의 말이나 활동이 들리고 보이도록 만드는 세계를 연출하는 데 필요했던 기반이자 도구인 셈이

게 공동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특정한 정치적 표상, 혹은 그런 표상의 담지자가 중요한 이유를 분석한 고전적인 정식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칼 맑스, 최인호 옮김,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1992, 382~383쪽.

11) 노현웅, 「촛불 든 '2.0세대' 집회중에도 '문자'로 행동 통일」, 『한겨레』, 2008년 5월 14일.

12) 임지선·신윤동욱, 「디시폐인부터 아고리언까지」, 『한겨레21』(제715호), 2008년 6월 19일.

13)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옮김,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 b, 2008.

다. 예전 같으면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10대의 사적인 발화들, 가령 "정책에도 반대하고 친구들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같이 나왔다," "저는 아직 15년밖에 안 살았습니다,"[14] "80만 명 카아의 힘으로 동방신기를 광우병 위험에서 지켜내자"[15] 같은 말들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장면은 이렇게 가능해진다.

중고생들은 계속 촛불집회에 나올 것인가?: 인터넷 소통과정의 잉여

여기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10대 중 일부(그리고 촛불집회의 반향을 최소화하려고 촛불집회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떠드는 보수주의자들)가 자신들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말한 부분이다.[16] 이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이었던 『괴물』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하던 봉준호 감독의 태도와 비슷하다. 혹은 전투는 새로운 영역들로 이동하고 확산되었는데 낡은 기치들과 설명틀로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1968년 5월의 아이러니를 연상시키기도 한다.[17] 그러나 일부 10대의 이런 태도도 이해할 만한 일인데, 이때 또 다시 문제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존재 그 자체이다.

인터넷은 10대에게 386세대/포스트386세대의 전대협/한총련 같은 역할을 해줬지만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징은 바로 이 부분에서 중요해지는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 특징을 통한 소통과정의 부산물, '잉여'이다.

1) 이차적 구술성

『구술문화와 문자문화』(1982)라는 저서에서 일찍이 월터 옹은 "언어표현이 전자(電子)의 방식으로 변화"됨으로써 "이차적인 구술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가 등장하리라고 예견한 바 있다.[18] 옹이 구술성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꼽은 "종속적이라기보다는 첨가적"이고, "장황하거나 '다변적'"이며, "논쟁적인 어조"가 강할 뿐만 아니라 "감정이입적 혹은 참여적"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만하다. 요컨대 인터넷 문화야말로 옹이 말한 이차적인 구술성의 표본일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앞서 말한 인터넷 식 소통과정의 부산물 혹은 잉여는 바로 이런 구술성에서 나온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은 새로운 기술매체가 등장하면 우리의 지각방식이 달라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충동의 무의식의 세계를 알게 된 것처럼, 카메라를 통하여 비로소 시각적 무의식[광학적 무의식]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벤야민의 지적, 즉 지각도구가 달라지면 지각방식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지각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달라진다는 지적에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존의 다른 기술매체가 모두 탑재 가능한 인터넷은 우리로 하여금 시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각의 무의식 세계에까지 폭넓은 영향을 끼친다. PC와 와이브로가 결합된 인터넷 1인 미디어가 기존의 주류 미디어

---

14) 소종섭·김지혜, 「학생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시사저널』(제969호), 2008년 5월 9일.

15) 이충형·한은화, 「촛불 시위 60%가 중·고생 … 그들은 왜?」, 『중앙일보』, 2008년 5월 1일.

16) 소종섭·김지혜, 「학생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같은 면.

17) 미셸 푸코, 조형근 옮김, 「«안티오이디푸스» 영역판 서문」,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푸른숲, 1997, 356쪽.

18) 월터 옹,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204쪽.

에서라면 볼 수 없었을 현장들을 보여줌으로써 벤야민 식의 지각의 무의식을 넓혔다면,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특유의 산물, '잉여의 정보'는 그 무의식의 내용을 변화시킨다.

'잉여의 정보'란 엄밀한 필터링을 해야 할 만큼 너무나도 많이 양산된 정보, 내용의 의미를 따져보기 전에 너무나도 많이 생산되어 더 이상 정보가치를 논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정보를 말한다. 그것은 장황하고 다변적이기 때문에 엄밀한 필터링을 해야 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양산해낸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그것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집합적이기 때문에 분석적이지 않고, 감정이입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위험이 늘 상존한다.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각종 '괴담'에 응축되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2) 지각방식과 지각내용의 변화

다시 벤야민으로 돌아가보자. 벤야민은 "역사의 전환기에 인간의 지각기관에 부과된 과제는 …… 촉각적 수용의 주도하에 …… 극복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왜냐하면 당대 대중의 지각방식은 정신집중이 아니라 '정신분산'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도시화라는 역사적 변화가 가로놓여 있다. 벤야민은 대도시의 교통혼잡 속에서 길을 걷는 행인을 예로 들고 있는데, 좀더 쉬운 예로는 자가용 운전자를 떠올려 보면 된다. 자가용을 운전할 때 운전자는 정신을 한 곳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언제 바뀔지 모를 신호등, 언제 멈출지/다가올지 모를 앞뒤의 차, 언제 골목에서 튀어나올지 모를 행인, 속도계, 기어 등등에 모두 신경 쓰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진다.

벤야민은 도시화로 인해 이렇게 인간의 지각체계에 일어난 심대한 변화들에 상응하는 예술양식이 바로 영화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지각체계를 갖게 된 동시대 대중들의 "정신분산 속의 수용은 영화에서 그 고유한 연습수단을 갖고 있다"라고까지 말한다. 그 이유는 "편집의 결과"인 영화야말로 정신분산적인(즉, 산만한) 예술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카메라장치를 통해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촬영한 장면들을 조립한 결과로서 태어난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편집의 예술이라고 할 만한데, 대도시에 살게 된 동시대 대중들이 주변을 인식하는 방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프랑스의 철학자 폴 비릴리오는 벤야민의 이런 주장을 "우리의 의식은 일종의 몽타주 효과이다"라는 말로 정리한다).

벤야민의 시대보다 도시가 더 복잡해지고 더 정신분산적인 환경에 노출된 오늘날의 대중들 역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일종의 몽타주처럼 인식한다. 그리고 인터넷이 대량으로 양산해낸 '잉여의 정보'는 그 몽타주의 원천 중 하나, 혹은 (인터넷 세대라는 10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

벤야민은 영화란 편집의 예술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환영적(비현실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영화라는 단일체로 재현되는 영상은 "여러 개로 쪼개어져 있는 단편적 영상들로서, 이 단편적 영상들은 새로운 법칙에 의해 다시 조립"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영화의 아버지들 중 하나인 조르주 멜리에스가 초창기에 만든 일련의 영화들(1896년의 『사라진 부인』, 1898년의 『머리뿐인 사내』)이 편집기술을 통해 이런 환영적 성격을 전면에 드러낸 당대의 공상과학 영화들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몽타주 기법이 자아내는 환영적 성격의 또 다른 예로서 1957년 미국의 마케팅전문가 제임스 맥도널드 비카리가 실험한 '잠재의식 광고'를 들 수도 있겠다. 비카리는 뉴저지의 한 극장에서 1/300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특정 메시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타키스토스코프Tachistoscope(어미 타키스토[스]는 그리스어로 "매우 빠른"이란 뜻이다)를 통해서 영화상영 중에 "코카콜라를 마셔라", "배고픈가요? 팝콘을 드세요"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줬는데, 그 결과 코카콜라와 팝콘의 판매량이 각각 18.1%, 57.8% 증가했다고 한다.

비록 그 과학성이 논란의 여지가 되긴 했지만, 비카리의 실험은 몽타주 식 지각방식의 위험성을 방증해 준다. 예컨대 특정 사안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비카리의 그것과 같은 불순한 정보(몽타주)가 끼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인간의 인식은 항상 왜곡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비카리의 실험에서는 불순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이기에 훗날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미몽에서 깨어날 여지라도 있지만,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 무수히 떠도는 '잉여의 정보'(특히 이 맥락에서는 진위조차 불분명한 정보)를 재료삼아 저마다의 몽타주를 합성하는 정신산만한 사용자들은 그 재료의 취사선택을 자신이 직접 한 것이기에 반대 사실을 접해도 좀체 기존의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비릴리오는 새로운 기술매체가 등장하면 우리의 지각방식이 달라진다는 벤야민의 테제를 '피크노렙시'(picnolepsie)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피크노렙시란 '빈번한'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피크노스'(picnos)와 '발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렙시스'(lepsis)를 합친 말로서, 의식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증상으로서 유년기가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

그런데 정작 비릴리오가 주목하는 것은 이 현상 자체라기보다는 이 현상의 파생물, 즉 피크노렙시의 '자동 귀납법'이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일시적인 의식의 단절로] 직접 보지는 못한 경우, 사람들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그 어린아이에게 납득시키고 싶어한다 …… 주변 사람들의 이런 강요로 내심 갈피를 못 잡고 혼란해 하는 어린아이는 이 상황을 설명해줄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한계에 처한 자기의 기억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한다."[19]

그러니까 피크노렙시의 '자동 귀납법'이란 "본 것과 볼 수 없었던 것, 기억하는 것과 확실히 기억할 수 없는 것(그래서 발명하고 재창조해야 하는 것)을 일치시키려고 …… 일련의 장면을 짜깁기하는 경향"[20]을 뜻하는데, "우리의 의식은 일종의 몽타주 효과이다"[21]라는 비릴리오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비릴리오는 이 지점에서 벤야민과 조우한다. 비릴리오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피크노렙시 현상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의 의식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재, 공백, 중단을 기술매체를 통해서 메우려 했던 역사이기도 하다.

마치 데카르트가 모든 인간이 지닌 자연의 '빛'(lumière)을 사용해서 "거짓된 것에서 참된 것을 구별"[22] 하려고 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이 빛을 확장하려는 노력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빛을 확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빛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의 빛이므로, 자연의 빛으로 자연의 어둠을 모두 밝힐 수는 없는 일이므로, 자연의 빛과 어둠은 둘 다 신의 작품이 아니었던가?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자연의 빛을 능가하는 빛, 자연의 어둠까지 모조리 밝힐 수 있는 빛이지만,

---

19) 폴 비릴리오, 김경온 옮김, 『소멸의 미학』,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29쪽; Paul Virilio, The Aesthetics of Disappearance, trans. Philip Beitchman, New York: Semiotext(e), p.10. 본문의 인용문은 국역본과 영역본을 참조해 문맥에 맞게 고쳤다.

20) 비릴리오, 『소멸의 미학』, 29쪽; Virilio, The Aesthetics of Disappearance, p.10.

21) Paul Virilio and Sylvère Lotringer, Pure War, 2nd Ed., New York: Semiotext(e), 1997, p.41.

22)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 『방법서설/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문예출판사, 1997, 179쪽.

우리는 더 이상 신에게 기댈 수 없다. 신에게 또 다른 빛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신에게 자신의 의중을 접으라는 말일 테니. 그런 까닭에 인간은 결국 스스로 신을 만들게 된다. 이른바 '기계-신'(deus ex machina)을. 그리고 이 기계-신은 속도를 먹고산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기계-신이 우리에게 주는 빛은 자연광이 아니라 인공광, 즉 기계-빛이다. 그러므로 기계-신은 자연의 태양이 아닌 또 다른 태양, 즉 모터(동력기)가 그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기계-태양이기도 하다. 바로 이 때문에 기계-신은 속도를 먹고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계-태양의 밝기를 좌우하는 것은 모터이며, 모터의 생명은 속도이므로.

비릴리오는 연속사진을 발명한 에티엔 쥘 마레를 통해서 이 사실을 설명한다. 마레는 연속사진을 통해서 그동안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가령 말이 달릴 때 앞다리와 뒷다리가 동시에 닿는지 안 닿는지)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빛이 발산되는 빠르기의 효과"[23]였다. 그도 그럴 것이, 마레가 발명한 크로노포토그래피(1초당 1백 장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기계)는 주기적으로 점멸하는 빛을 아주 짧은 시간(가령 수백 분의 1초) 동안 운동하는 물체에 비추면 그 물체가 정지한 듯이 보이게 되는 '스트로브 효과'의 원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순간들"[24]은 빛의 속도, 그 빛의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터의 속도와 더불어 다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기계-빛의 등장으로 우리의 의식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재, 공백, 중단이 다 메워진 것일까? 그래서 일종의 짜깁기인 피크노렙시의 '자동 귀납법'이 낳은 숱한 오류를 모두 물리친 것일까?

비릴리오는 세계를 관장하는 속도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속도든) 끊임없이 가속되는 경향이 있듯이 빛의 속도도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모터의 등장으로 또 다른 태양이 솟아오르고 시각은 급변해갔다. [모터라는] 이 이중 투사기가 속도를 창출하고 이미지(활동 이미지, 혹은 영화적 이미지)를 증식시켜줄 테니, 모터의 빛이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25]

비릴리오의 말에 따르면, "1초당 5백 개의 이미지를 보다가 1초당 1백만 개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는 지나치게 밝은 빛이나 같다. 그리고 지나치게 밝은 빛은 우리를 눈멀게 한다."[26]

너무나도 빨라진 (빛/시각으로서의) 속도는 우리를 눈멀게 하기 때문에, 가속화된 기계-빛은 인간의 지각을 직관에만 머물게 만든다("직관이란 과속을 하고 있는 지능이다"[27]). 우리의 지각이 완성되는 데에는 판단이나 추론도 필요하나 가속화된 기계-빛은 판단이나 추론에 필요한 시간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반응할 뿐 ……. 따라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악화됐다. 피크노렙시 현상을 없애려던 기계-빛은 오히려 '잃어버린 순간'을 배가시켰고, 결국 의식 자체를 소멸시킬 경지에 올랐으니. "첨단과학의 속도가 더욱 더 빨라질수록 우리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현상을 직접 지각할 수 있는 의식 자체가 소멸된다."[28]

---

23) 비릴리오, 『소멸의 미학』, 46쪽; Virilio, The Aesthetics of Disappearance, p.18.

24) 비릴리오, 『소멸의 미학』, 43쪽; Virilio, The Aesthetics of Disappearance, p.17.

25) 비릴리오, 『소멸의 미학』, 97~98쪽; Virilio, The Aesthetics of Disappearance, p.50.

26)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86.

27) 비릴리오, 『소멸의 미학』, 53쪽; Virilio, The Aesthetics of Disappearance, p.115.

28) 비릴리오, 『소멸의 미학』, 189쪽; Virilio, The Aesthetics of Disappearance, p.104.

바로 이것이 이번 촛불집회에서 논란이 된 각종 '괴담'('독도 괴담'에서 '정도전 예언 괴담'까지)이 등장할 수 있게 된 하이퍼테크놀로지적 배경이다. 또한 거꾸로 말하자면, 이번에 등장한 각종 '괴담'이야말로 인터넷의 '잉여의 정보'가 양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응축되어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투는 새로운 영역들로 이동하고 확산되었는데 낡은 기치와 설명틀로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1968년 5월의 투사들처럼, 촛불집회에 참여한 자신들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말한 일부 10대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과장일까?

물론 인터넷이 양산해내는 '잉여의 정보'라는 쟁점은 (전통적으로 인식의 수준이 덜 발달되어 있다고 말해지는) 10대들 고유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런 쟁점을 회피하는 한, 우리는 '새로운 사회운동 주체'라고 찬양해마지 않던 10대들에게 언젠가 돌을 던질 것이다. 한때 좌파들은 대학생들의 이중적인 지위("대학생들은 프티부르주아지라는 '현재의 지위'와 졸업 후 생산관계 내에 편입되어 담당할 '장래의 역할' 사이에서 위태롭게 평형을 유지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를 근거로 대학생들이야말로 혁명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다가, 대학생들이 사고를 치자마자 똑같은 근거("대학생들은 어쨌든 프티부르주아지에 불과하며 생산관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상적이다")로 공격을 해댄 바 있다. 한 번 해본 일을 두 번 못할 이유가 없다. 예전처럼 '있는 그대로'의 학생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 한, '웹 2.0 세대'에게 맹목적인 열광을 보여주는 좌파들은 조만간 이들에게 무의식적인 경멸을 보낼지도 모를 일인 것이다. (끝)